

경제효과로서 시간자본

황덕순 · 허균석*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겸임교수, 생활과학연구소

Study on Time capital as the economic effect

Duck-Soon Hwang · Gyun-Seok Heo*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would study how the time functions as the capital and how the time capital specifically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quality of life. The time has the economic effect in forming various social capitals as well as forming the financial asset. The time does not have the economic effect as itself. However, the time has a certain economic effect although it is not the traditional productive element. When the time is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social system, the effect like certain capital occurs. It is very necessary to enrich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right knowledge on time capital and positive utilization.

Key words: Time, Economic effect, Time capital, Social system, Financial goal, Social capital, Quality of life, Happiness

I. 서 론

자기관리 및 자기계발이나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종류들을 나타낼 때 '시테크' '시간관리'라는 개념이 사용 된다. 시간은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목표달성 전략에도 사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복잡한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달성을 위한 여건이 충분치 않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하여 투자전략에 시간을 고려하거나 가족, 여가, 자기계발 등 미래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시간사용을 고려한다. 현재의 여건에 맞는 노동량의 적절한 공급과 미래의 사회자본 형성, 재무목표 달성이라는 과제에 당면하여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사람들은 시간활용 문제에서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 관계는 시간자본의 활용 효과 정도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되기도 한다. 그만큼 시간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사회환경은 기존의 노동량, 주거비용, 교육비 등의 소비량에 다른 원칙을 도입하거나 가계경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사회자본 형성을 지속하거나 경제적 안정을 찾기 어렵게 한다. 단순히 양적 변화중심의 시스템적 대안이 아니라 가계경제 운영과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시간 사용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학의 자본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본이 투자되면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지식이나 숙련에 투자하면 인적자본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면 그 결과로서 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데, 이를 사회자본이라고 한다(장시준, 2006). 이는 고전경제학에서 생산요소 혹은 생산수단으로 불리는 전통적 의미의 '자본'개념을 확대시킨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자본의 개념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무목표 달성이나 사회자본 형성에 투입되는 시간의 경제적 가

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시간이 자본으로 어느 정도 기능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에 대한 느낌은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다만 시간과 그 사용방법에 대한 지식과 현실 적용에서 그 효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은 효율적 시간사용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개인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건들 간의 조정을 통해 올바른 시간활용이 필요하다. 시간사용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개인의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에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머물렀던 토지, 노동, 자본의 공급 증가를 통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 달성이 아닌 시간이라는 제3의 영역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크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내용은 시간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의 사용효과와 그로 인한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시간자본'활용은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관리 기술적인 요소가 아닌 경제적 효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 하고자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소득의 증대나 소비의 감소를 통한 합리적인 재무적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 될 수 있다. 개인의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달성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시간의 효용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목표달성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간은 저축량과 더불어 가계의 안정적 재무구조를 위한 자산형성의 원천이다. 가계가 현재를 위해 소비하는 지출요소와 미래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자본으로 축적하는 저축에 어떻게 시간이 작용하는가는 개인의 미래생활의 삶의 수준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개인에게 행복의 원천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사회적 자원들과의 관계성이 함께 작용한다는 면에서 사회자본형성과 같은 비시장 영역에 대한 시간자본 투자 역시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시간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살펴보고, 시간이 경제적 자본 및 사회자본과 결합 할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본으로서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 시간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능하는 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II절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시간에 관련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시간의 특성, 재무적 비재무적 영역에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I절에서는 시간자본의 현실생활 적용문제로 라이프 사이클과 지속성의 문제, 규모와 시간자본, 시간자본의 상대적 효과, 사회적자본과 시간자본을 통해 시간의 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IV절은 요약 및 결론이다.

II. 개념 및 선행연구

1. 시간과 시간자본

현대사회는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증가 시키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 풍요는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바쁜 생활에 쫓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인의 생활과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 미래로 움직이는 비(非)공간적인 연속체(連續體)'로 정의되고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013). 시간에 대한 개념은 사회마다 다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경향을 보여왔고, 미국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모두 현재 지향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00). 시간은 인적자원으로서, 시간에 대한 개념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개념은 현실에 대한 지각의 한 부분을 이루며, 그 사람의 시간적 활동 배열에 영향을 주고, 목표 설정과 성취에 영향을 준다. 시간개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들끼리 서로의 활동에 협동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경과를 공식화하게 되었다. 자연의 주기를 기초로 하여 연, 계절, 월, 일, 시, 분, 초 등으로 시간을 분할하여 달력과 시계를 사용하여 객관적 시간 측정체계에 사람들은 적응하고 있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00). 시간사용은 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1일 24시간의 사용뿐 아니라 일생에 걸친 시간사용도 포함 한다(김외숙·

이기춘, 1988).

오늘날 인간은 시간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동은 시간에 의해 그 대가를 지불받고, 기업가들이 시간이 분모가 되는 공식으로 계산되는 생산성에 민감해짐에 따라, 시간은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이희진, 2006). 단순히 자연적 물리적이거나만 생각될 수 있는 시간은 사회적인 제도와 결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개인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하나의 자본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된다.¹⁾

시간자본이란 시간이 그 활용에 따라서 자산, 제도 등과 결합하여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때 시간이 자본으로서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시간은 물리적 속성상 그 경과를 지연하거나 고정시킬 수 없다. 다만 활용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자신의 목표달성에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간'은 인간이 활용(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 경제의 대상으로 한다(김태희, 2008). 본 연구의 시간의 자본화는 주어진 시간과 사회제도 및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 또는 관계 등이 함께 활용 가능하다는에서 나타나는 시간 사용의 경제효과를 말한다. 시간자본이란 개인이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체계(제도)와 맺는 사회적 관계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간이 투입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산적 자본이다.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rational actor)이다. 합리적 존재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행위자의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기능(function)요소로서 시간의 자본형성 기능(Effect of time capital)에 주목한다. 다양한 사회제도나 관계에 시간 투자가 합당한 기능을 하게 되면 시간자본이 될 수 있다.

2. 시간의 특성

시간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은 양적인 측정이 가능한 자원이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10). 시간에 대한 개념은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시간의

1) 이희진, 정보기술은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삼성경제연구소, 2006, p.17.

시간이 사회적·문화적인 것으로 규정되면 시간이 사회를 형성하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념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조차 없는 문화도 있고, 현재를 미래보다 강조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과거 또는 미래를 더 강조하는 문화도 있다. 그 반면에 문화가 발달된 곳일수록 생리적 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특정 시간이나 환경을 만들어서 이에 맞추어 생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간은 인적 자원으로서, 시간에 대한 개념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김외숙 외, 2010). 따라서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제도 및 문화와 관련되어 발현 된다.

또한 시간을 지각하는 모델에 따라 시간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에 차이를 가져 오기도 한다. 서구문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서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파악한다. 그 결과 오늘의 시간투자는 그것이 미래에 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선형적-분리적(linear-separable) 시간개념은 경제적 시간과 관련 된다. 절차적-전통적 모델의 경우 절차적 지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단계, 사건, 절차 등을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량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순환적-전통적 모델은 시간은 규칙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리듬을 갖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명확한 구분 없이 내일 역시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 한다(김외숙 외, 2010). 일상의 개인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관리행동과 소비행동, 그리고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활동에 문화의 차이를 보여 주기도 하고, 맥락에 따라 혼란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시간은 돈으로 사고 팔수 없는 본원적 비시장성, 저축이 불가능한 비저장성, 빌릴 수 없는 대체불가능성, 복원불가능성,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절대공평성, 시간자본은 일반 경제적자본과 달리 개발 불가능한 자본의 특성도 있다(하태석, 2014).

이러한 시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본(capital)을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으로 정의 한다면 시간 역시 개인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자본의 기준은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간은 모든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구성 된다(이희진, 2006).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3대 자본이 사회·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간 역시 자본으로 활용될 사회성(sociality)을 갖고 있다. 시간은 돈에 비견할 만하고 최소한 돈만큼 평가

받아야 하는 귀중한 재화다(김태희, 2008). 또한 시간은 토지 등이 갖는 고유자본성(자산본원성)보다는 제도와 결합할 때 자본의 경제효과가 극대화 되는 매개자본성(intermediation)을 갖는다. 전통적 3대 자본이 그 취득에 있어서 상대적 평등자본(relative equal assets), 공유가능자본(share assets) 유상자본의 성격을 갖는 것과 달리, 시간은 절대적 평등자본(absolute equal assets), 공유불가자본(monopolizing), 무상자본의 성격을 지닌다(허균석·황덕순, 2012).

또한 시간은 제한된 시간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련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상대적 희소성(relative scarcity)을 유발하여 경제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시간은 각 개인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상대적 무형의 자유재(relative immaterial free goods)로서 그 자체로서는 거의 무가치하다. 시간은 일정한 상황(timely)에서 그 필요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기회자본(opportunity factor) 이면서 대체불가능성을 갖는다. 전통적 자산이 취득자산(acquisition)임에 비해서, 시간은 부여자본(be endowed assets)의 성격을 가지며 결합자본(the packing effect)으로서 기회효과 극대화가 가능하여 한정된 경제자원으로 최대한의 자산 축적이 가능한 최대효과의 원칙이 적용 가능하다(허균석·황덕순, 2012). 시간자본이 불특정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 구조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조건들과 함께 작용할 때 시간이 자본으로 기능한다. 시간자본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연계된 쌍방적(부합적) 성격을 지닌다. 결국 개인의 시간자본화 능력(time literacy)과 사회의 제도(비과세, 복리 등)을 충족할 때 자본으로 기능한다.

시간사용이 자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양이어야 하고, 사회제도 등에 적합해야 한다. 시간의 규범성은 시간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관련 체계 내에서 지지되어야 할 규범(제도)과 관련하여 쌍방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때 확보된다. 사회체계 내에서 시간사용이 준수 되므로써 보상(비과세 등)이 따르거나 준수되지 않을 때 불이익(과태료, 당초 약정금리 부지급 등)이 주어짐으로써 시간이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시간자본의 규범성은 신뢰(trust)와 상호호혜성

(reciprocity)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전제 한다. 따라서 시간자본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상황적 제약을 받는 나름대로의 쓸모, 곧 유의도(valence), 합목적 효력을 갖는다. 의도하는 목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성(지속성)을 요하며, 중도의 시간단절은 그 효과를 체감시키기도 한다. 시간자본의 활용효과에는 재무적·비재무적 목표달성의 Hot Point(효과의 절정점, peak point)가 존재하기도 한다. 복리투자, 브릿지잡, 여가개발에 있어서의 10만 시간의 법칙 등으로 그 효과가 강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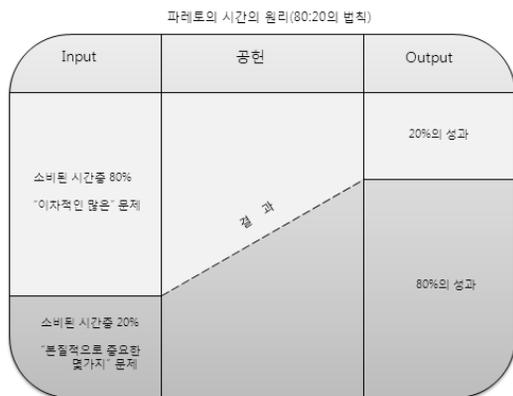
또한 시간의 효과는 항상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일정시점의 시간효과는 다른 시점의 효과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효과의 불균형성).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는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이 80/20 법칙에 따라 사람이 성취하는 것의 80%가 사람이 소비하는 시간의 20%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 했다. 이는 시간의 효율성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활동 20%에 달려 있다고 하므로서 시간의 전략적 사용에 따른 효율성 인식에 주목 하였다. 이는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크기라 할지라도 시간의 사용효과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목표 달성에는 적절한 시간사용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박기안, 1993).

시간은 물질적으로 만질 수 없다는 점에서 돈과 구별되며, 그런 점에서 시간은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무정형성

을 갖지만 측정이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절대성을 갖지만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의 흐름은 다른 상대성을 갖는다. 시간자본은 사회적구조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즉, 시간자본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하며, 만일 특정한 목적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오히려 심리적 부채(psychological liability, psychological burden)로 작용하게 된다. 물리적 시간은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진행된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과 죄수에게 있어서 시간 흐름은 다르게 인식된다. 사람은 스스로 시간에 대한 느낌을 조절할 수 있고 자본화 시킬 수 있다.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자신의 내면과 결부되어 느낀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 목표를 향한 달성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는 시간 자본 효과 극대화 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시간자본이 재무목표 달성에 긍정적 기여를 통해 개인의 경제력확보와 국민경제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비재무적 사회자본 형성과 확보에 적절한 시간활용은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시간자본 활용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의해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 시간에 대한 양적 개념에 대한 맹신으로 현실 안주에서 오는 갈등과 부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현실 적용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시간이 자본적 속성으로 기능하는 본질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3. 시간의 중요성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건강과 더불어 시간의 중요성을 들기도 한다. 시간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건강이나 재능, 금전 등의 자원은 얼마든지 개발하고 저축하며 확대 가능하지만 시간 자본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독특하고 제한된 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하태석, 2014). 시간은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합리적 존재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형성하는, 다양한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시간자본이다. 법, 제도, 사람 등과 결합하여 시간은 자본으로 기능하고 법, 제도, 사람 등은 시간자본 형성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부가재원이 되기도 한다.



자료: 박기안(1993), p.114 인용.

〈그림 1〉 파레토의 시간의 원리(80:20의 법칙)

시간자본의 속성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도 한다. 시간의 특징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보적 이점(Information benefit)과 통제적 이점(control benefit)을 지닐 수 있다. 곧 그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범위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의 역량을 스스로 혹은 타매개체와 연계하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회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권을 통해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한 주 168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아무런 사용됨 없이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짧은 것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은 상대적인 인식과 함께 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새로운 기술과 활동에 투자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화폐와는 다른 부의 형태인 사회적인 관계에 투자하는데 시간을 활용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다(구계원, 2011). 다른 한편에서는 일정기간이 부과된 비과세금융상품에 시간이 활용되어 경제적 효과로 연결되기도 한다. 시간은 사회적 인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생활과 밀접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체스터필드(Philip Dormer Stanhope, 1694~1773)는 《아들에게 보내는 서한(Letters to bis son, 1774)》에서 시간을 흘려버리느니 그것을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편이 나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엄청난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 하며 자신이 평생동안 실행한 방법을 제시하며 시간의 중요성을 역설 한바 있다(김태희, 2008).

시간의 자본화 효과는 가계경제에서 시간배치의 문제로 노동, 가사활동, 자산운용 등에서 시간경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알베르티는 처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개념에 시간경제 라는 핵심적 관점을 덧붙임으로서 시간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며, 세네카의 표현을 빌려 시간을 지극히 귀중한 재화(cosa preziosissima)라고 불렀다(김태희, 2008). 이처럼 시간은 매 순간 부지

불식간에 빠져 나가고, 눈으로나 손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 개인의 목표달성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시간 활용의 그 효용의 크기는 이용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결국, 시간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Harald Weinrich, 2008)이라는 핵심 문제는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달성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시간의 자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예측에 따른 통제감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삶의 각 생애 주기별 목표와 관련된 예방적 행위(준비)는 뚜렷한 시간 인식이 전제될 때 시간에 쫓기지 않는 실천이 가능하다(허균석·황덕순, 2012).

4. 선행연구

시간과 관련 연구는 가정학, 경제학, 철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주제다. 시간사용연구에 있어서의 학문별 접근방법은 관심주제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같은 영역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그 관점이 다르다. 시간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문제는 1960년대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가치분석을 통해 시도한 연구는 민서(J. Mincer)와 베커(G. Becker)의 연구로 시작 되었다. 민서는 기혼여성의 가사와 노동시장참여 간의 시간배분에 관해서 시장가격, 기회비용 및 소득효과와 관련하여 시간가치연구의 불가피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전개 하였다. 베커는 『인간자본론』을 통해 정규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시간가치를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시간배분론(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에서 전통적인 소비경제모델에 시간의 제약조건을 포함시키고, 생산에 있어서 화폐만이 아니고, 시간도 한정된 자원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시간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서 추가 하였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10). 니콜스와 메첸(Nickols & Metzen)이 가사노동시간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가설로 가족구성원들의 시간제약, 가사노동의 압박, 가사노동의 촉진요인 등에 초점을 두면서 가사노동시간 연구를 행한 것이 이론구축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10). 1978년 미국 소비자 연구 협회(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에서 시간을 주제로 시간의 의미, 시간 지향성, 시간 예산에 관한 연구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분야가 되었다(백숙현, 2003).

시간관련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점간 선택의 관한 효용성 연구(최민식, 2013; 김성진, 2008), 시간할인 관련 연구(Thaler, Richard H., 1981),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관련한 시간변수 연구(임경복, 1994; 백숙현, 2003). 또한 소비자의 시간과 정보탐색행동 연구(이정아, 1996), 여가활동과 시간 연구(정영아, 2008; Cotte, J., 2003), 직업 지위와 시간 인식 연구(이승미, 1989), 시간사용과 삶의 질(이정수, 1984; 이정수, 1985; Harvey, Andrew S., 1993), 시간의 관한 평가 연구(윤자영, 2010), 시간관리 연구(리닝솔루션, 2004; 박기안, 1993), 시간과 동작연구(리닝솔루션, 2004, 재인용)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하에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연구목적, 이론전개, 연구방법 등으로 시간사용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사용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지만 측정되지 않고 타인에 의해 부여될 수 없다. 시간은 측정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행동은 시간과 함께 진행된다. 따라서 시간사용을 파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인간의 사회구조에는 여러 가지 규칙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규칙성은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상당부분 시간과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간이 시간 외의 사회적 경제적 자본과 관련된 사회제도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시간의 경제적 사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의 자본효과를 인식하게 되므로써 개인, 가족 및 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수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시간자본의 생활 적용

1. 라이프사이클과 지속성

그동안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달성의 문제는 이전의 상태가 지속되리라는 것을 전제하며, 가계 저축의 증가

와 시간 관리적 방법을 강조해 왔다. 특히 기존의 은퇴 준비에 대한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지속가능한 은퇴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소가 경제적 자산임을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은퇴생활이 유지되려면 경제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충족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경제적 은퇴 준비자산 마련 과정의 효율성은 개인의 자원에 맡기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형성과 같은 비재무적 목표달성에 있어서 시간의 사용계획과 관리의 효율성 문제에 집중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사용효과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은 미흡할 수 밖에 없었고 시간자본의 효과는 생활 적용에 이르는 추동체로서 역할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이르는 삶의 향상과 관련된 시간의 관한 지식,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및 규모의 문제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다한 교육비 부담과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증가, 저금리 시대 진입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추구 곤란, 산업구조조정으로 근로소득의 불안정과 비정규직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공적조세 부담의 가중 흐름, 길어지는 은퇴생활은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도 가계의 저축량이 소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점점 더 많은 가계자원을 소비하게 되면서 가계경제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자본적인 양적 확산과 더불어 사회제도 활용 등과 같은 제3의 길을 함께 모색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려운 시대에 진입했다. 가계 재무목표 달성에 있어서 '저축량 조정'요소만의 일관된 강조는 대안 없는 제안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 경제상황이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낮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커진다. 그리고 현실적 생활경쟁 요소들 중 소비의 조정만을 통한 저축량 증대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재정은 쉽게 조정 축소하여 실행되기 어려운 항목들이 산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고 독창적인 요소가 아닌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낮익은 요소인 시간이 경제적 효과창출 요소로서 적용될 때 반드시 기존의 방식이나 기준에 맞춰 소득(저축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서 시간은 풍요로운 삶의 창출에 기초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시간자본은 사회자본 형성과 같은 비재무적인 목표달성에 있어서 단기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자본은 그 본질적 특성상 '신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시간의 충분한 공유가 이뤄질 때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 한다. 즉 상호면식과 인정, 인적자본 사용기회에 대한 기대형성, 공동의 목표 등이 형성되기까지는 부단한 규모의 개인의 노력과 혼합성자본인 시간을 장기간 활용하는 경우에 의미 있는 결과 창출이 가능 하다. 따라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시간은 유용한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고, 그 실천의 지속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2. 규모와 시간자본

시간의 연속성 차원은 과거 사건의 순서를 정하고 연결하는 역사적 시간개념과는 달리 과거, 현재, 미래의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00). 시간의 연속성은 시간의 규모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속성 단위로서 요구되는 규모는 제도와 결합하여 하나의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시간이 자본으로 기능하기 위한 규모는 시간의 비분절적 양적(amount) 조건을 충족할 때의 크기(size)를 말한다.

자본으로 기능하기 위한 시간의 규모는 요구되는 맥락과 제도에 따라 다르다. 생애주기에서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조화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요소에 자신을 적응시켜 간다. 성인기 이후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 특히 장기적 계획과 실행을 필요로 하는 자기계발, 직업개발, 은퇴준비는 중단 없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어떤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간자본의 위력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존재한다.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부단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년을 안정감 있게 보내는 사람들 중의 상당수는 엄청난 사업의 성공자만이 아니다. 재무설계를 통해 생애 준비를 작은 금액으로도, 자투리 시간이라도 꾸준히 전략적으로 집중과 반복으로 묵묵히 실행한 사람들이다. 단 한 번의 결심과 실행으로

노년준비가 완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노년기를 위한 생애 준비는 한번 마음먹은 것으로 이루어질 만큼의 단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년의 생애 준비 요소는 전생애적 속성과 다양한 사회적 관련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되고 지속적인 자기 집중이 필요 하다(허균석·황덕순, 2012).

시간 요소는 이용자의 사용에 따라 자본이 되기도 하고 기회요소가 되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부여 받은 시간자본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의 틀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노년준비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속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간을 '자본'으로 사용 할 때 달성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의미 중심의 틀과 실천중심의 틀의 실현은 단계적 시간의 투입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적·비재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노후준비는 시간투자와 준비활동이 함께 진행될 때 그 달성가능성이 크다.

시간자본은 시간이 그 운용방법에 따라서는 토지, 노동력, 자본과 같이 한 개인에게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돈이나 노력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경제재와 달리, 시간은 재화는 아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유재이므로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그 사용에 따라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생산재가 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물건인 재화에 반해서 시간은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그 쓰임에 따라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 시간은 일반 재화와 달리 취득에 있어 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정교한 계획과 노력을 들인 것만큼 비례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므로서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시간은 그 사용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발생 한다. 그 시간의 구체적 활용에 따른 희소성이 노년기 준비의 양과 질의 개인차를 발생하게 한다. 동일한 경제적 조건에서도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동일한 금액을 어떻게 시간과 연계하여 운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이자계산 방식인 단리와 복리의 운용의 차이에 따

라 노년기의 경제적 준비의 크기는 달라진다.

$$FV = PV(1+i)^n$$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i = 이자율, n = 기간

단순히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복리는 그 속성상 장기간의 시간이 자본으로 작용하므로써 그 잠재적 경제효과를 드러낸다. 따라서 노년준비는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의 장기 확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젊었을 때 보다 빠른 시작을 필요로 한다. 토지, 노동, 자본에 있어서만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는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노년준비에 있어서 경제적 준비량의 절대적 결정요소는 미리 준비하는 금액의 크기만이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표 1>에서와 같이 자본으로 기능하는 장기 시간이 노후준비의 핵심요소다. 시간투자의 양은 일정한 규모 이상일 때 그로 인해 경제적 효과, 심리적 효과를 달리한다.

단리와 복리의 제도차이는 20년, 30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은 '또 다른 노후자본'으로서 기능하며 심리적 안정감의 부여로 삶의 질적 차이를 발생 한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저축을 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시간의 자본형성 기능을 고려하면 준비하는 동안의 심리적 여유도 가질 수 있다(허균석·황덕순, 2012). 경제적 부자들은 복리의 힘을 유리하게 활용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인간들의 가장 놀라운 발명 가운데 하나가 복리의 힘이라고 생각 했다. 적은 저축량을 활용하여 시간이라는 경제효과를 주는 복리제도를 장기간 활용하면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력개발, 여가

개발, 사회관계형성 등에서도 시간의 경제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자본에 대한 어떤 인식도 현실 활용에 대한 모색이 시도되지 않으면 제도와 시간의 결합에서 얻어지는 시간의 자본효과를 얻기 어렵다.

3. 시간자본의 상대적 효과

일상적 가계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시간은 가계의 재무목표를 위한 자산 형성에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다. 토지, 노동, 자본이 그 소유나 획득 방법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 상대자본인 것과 달리 시간자본은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 받는 절대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자본은 사용의 효과까지 절대적이지는 않다. 시간자본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하는 법과 제도의 활용에 따라 그 효용의 크기가 달라진다. 시간은 통합적 활용여부에 따라 경제적 준비 결과의 현격한 차이를 발생케 하고 그로 인해 노년기 준비의 정도를 결정하는 영향요소의 하나로 작용 한다(허균석·황덕순, 2012).

시간자본은 일종의 혼합 자본적 성격을 갖는다. 경제학에서 혼합성 자본(Mezzanine Capital)이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차입금과 출자금 사이의 특성을 지닌 일종의 "hibrid financing instrument"를 의미한다. 혼합성 자본성격을 지닌 시간은 출자금과 차입금 또는 노동력 등의 전통적인 자본구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 전통적인 자본구조에 보완적인 요소로 이용되어 일정한 경제효과를 발생시킨다. 시간은 일반적인 경제적 자본처럼 보편적으로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간자본 효과는 국내 및 국외 세계와 법령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법 제16조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표 1> 시간과 복리효과

월 100만원 적립	5년 시점	10년 시점	20년 시점	30년 시점
5% 단리일때	67,625,000	150,250,000	360,500,000	630,750,000
5% (년)복리일때	67,813,738	154,363,161	405,804,485	815,375,907
차이	188,738	4,113,161	45,304,485	184,625,907

자료: 허균석·황덕순(2012), p.32.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Gain on insurance settlement taxable)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입이후 10년 이상 유지 조건을 불충족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 하고 있다. 개인에게 '시간'을 활용한 추가적 소득창출 가능성을 부여 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경우에도 시간과 관련하여, 중도해약이나 만기 등에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를 통해 시간의 자산형성 기능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제도와 시간(10년)을 재무적 목표 달성에 활용 하게 되면 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과세차액 만큼 시간활용을 통한 자본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시간은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경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

〈표 2〉 주요 국가의 보험차익 과세여부

과세 형태	국가
전면 비과세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스 등
기간별 차등과세	프랑스 : 8년 이상(비과세) 8년 미만(보험차익의 일부 과세)
일정기간후 비과세	한국, 영국, 이태리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네덜란드, 독일 : 12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자료: 서희열 외(2010), p.7-17. 요약

생애주기에서 노후자금 준비의 경우 20~30년 이후의 은퇴자금을 목표로 준비해 간다고 전제 할 때 시간의 자본효과는 더욱 분명해진다. 시간의 통합적 운용이 아닌 5년 단위의 분절적으로 반복해서 자산을 운용 한다면 일정기간 이하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제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법령에 의거 적용 받을 수 없다. 〈표 3〉에서 30년 기준시점의 시간의 통합적 운용에 따라 비과세 적용된 약 4,100만원의 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적 여유 자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수익은 시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다. 한정된 크기의 저축량만 재무목적 달성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 분절적 저축활동도 노년기 준비자산 형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동일한 금액, 동일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노년기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허균석·황덕순, 2012).

시간의 자본형성 기능은 비재무적 요소와도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다. 사회자본은 경제자본, 인적자본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본의 한 형태로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장시준, 2006). 이러한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자본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속에 내재하는 자본이며, 이익이 공유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자본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교환관계는 등가물의 교환이 전제되지 않으며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장시준, 2006).

〈표 3〉 시간의 통합적 활용 효과

월 100만원 년 5%, 단리 적립	5년 시점	10년 시점	20년 시점	30년 시점
원금	60,000,000	120,000,000	240,000,000	360,000,000
일반과세 후 수령금액	66,450,750	145,591,500	341,943,000	589,054,500
비과세 수령액 ²⁾	67,625,000	150,250,000	360,500,000	630,750,000
과세액 ³⁾	1,174,250	4,658,500	18,557,000	41,695,500

자료: 허균석·황덕순(2012), p.32.

2) 2011년 기준 상품에 따라 7년 또는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적용되는 상품이 있다.

3) 현행 15.4% 과세체계

이러한 사회자본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나 전통이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한 가치나 관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 될 것을 요한다. 사람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현실적으로 장기 지속적인 시간의 투입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사회자본은 시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뒷따를 때 그 효과는 발현된다. 시간이 투자된 사회자본 효과는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제고 시킨다.

4. 실현가능성 증대효과

저금리·저성장 시대의 지속은 자본수익과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가계의 소비활동과 저축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기존의 가계 건축 재정과 저축량 증대 중심의 재무목표 달성 전략들은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된다. 재무목표 달성들을 위한 전략과 연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전환되고 집중 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은퇴준비의 경우 특정 자산에 한정하여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재테크를 강조하는 경향도 존재 한다. 또한 자신의 위험수용 성향과 투자수익 기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판매자 중심의 재무달성 전략을 위한 실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명확한 재무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장기적인 추진력의 상실로 가입과 해약을 반복하며 현실에서 뚜렷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간의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의 응용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보다 용이롭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자체에 대한 자본적 속성은 잘 부여하지 않는다.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노력이나 댓가 없이 매일 부여되기에 희소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시간은 그 가치를 달리 한다. 시간은 현실인식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다(허균석·황덕순, 2012).

〈표 4〉 시간자본과 은퇴준비자산의 달성 가능성

만기 60세, 목적자금 5억, 연복리 5% 적용	20세 시작	30세 시작	40세 시작	50세 시작
월 불입액	337,262	613,214	1,232,120	3,239,114

자료: 허균석·황덕순(2012), p.33.

〈표 4〉에 볼 수 있듯이, 동일한 목적자금을 준비하더라도 시간활용 시점에 따라 그 부담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시간자본이 주는 복리효과는 시간의 대체가능성⁴⁾을 입증 한다. 또한 시간은 목표에 대한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좌우 한다. 목적자금 5억을 목표로 20세에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은 연령증가에 상관없이 약 33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50세가 될 때까지 매월 계속 적립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다양한 생활비 경쟁이 발생하는, 현재의지 문제가 급부상하는 40~50대가 되더라도 매월 불입하는 금액 33만원은 현재소비 문제에 큰 영향을 받음 없이 노후준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0세에 시작하는 사람은 약 123만원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시작 할 때의 금액 123만원 자체도 20~30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이다. 40대 이후는 미래 노년기의 문제보다는 당면한 자녀의 대학교육을 전후한 교육비 부담 등 생활비 문제와 경쟁하여 노후준비의 문제는 축소된 실행이거나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준비의 실행에 있어서 시간이 자본으로 기능하는 효과는 단순히 준비해야 되는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미치는 절대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간자본은 전통적 생산수단과 달리 노년준비문제에 있어서는 차입이 불가능한 절대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노년준비 금액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과 그 운용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크기가 주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허균석·황덕순, 2012).

4) 한번 경과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다른 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시간자본효과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은퇴 전에는 오직 경제적 준비의 크기를 늘리거나, 노후 당면 생활에서 생활비의 크기를 줄이거나, 은퇴 이후에도 계속 소득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법 등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적자본과 시간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력이나 비즈니스 요인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 투자를 한다. 시간투자를 통해서 개인과 회사 등의 조직을 건전하게 만들고 상당한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간투자는 개인의 여가생활 개발과 새로운 직업개발, 은퇴계획에서도 필요로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시장에 사용해 왔다. 요구되는 업무시간은 늘어나고, 여가에는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값비싼 취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⁵⁾이 작동한 결과 교육비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과거 농경시대와 달리 오늘날 사용하는 물건은 직접 만들기보다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 소비로 이어진다. 그 결과 가계가 창출하는 소득의 양과 속도보다 소비하는 양과 속도가 더 빨라 가계경제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세에 반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외에서 추가적인 활동을 다양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은퇴기 이후 가계소득 유지와 활기찬 생활을 위해 여가와 소득을 결합할 수 있는 '할 일'을 갖는 것은 장수시대 현대인의 필수 준비요소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100세 시대에 직면한 현대는 완전한 비근로형 은퇴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이다. 또한 삶의 대안 접근 방식 또한 일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고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역할과 봉사로 생의 보람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환경에 있다. 노후준비에 있어서 간과 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노년기를 위한 제2의 직업준비의 시간의 통합적(Integrated) 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핵심은 은퇴기간의 취업을 위한 준비시간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마련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시간은 통합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때 시간자본이 에너지로 효용이 극대화 된다. 시대 적합성을 갖는 브릿지잡의 개발과 능력을 갖추려는 의지적인 시간사용 노력이 필요하다(허균석·황덕순, 2012).

장수시대에, 더욱 길어진 노년기에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겸하며 즐길 수 있는 취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연령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개인은 스스로가 좋아하며, 미래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일 선택과 지속성 있는 시간투입이 필요하다. '할 일'을 통한 삶의 활력은 은퇴 이전에 통용 되던 업종에 안주하기 보다는, 10~15년 후 사회적으로 통용 가능한 업종을 미리 배우고 익힘에 장기적으로 주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노년기에 이를수록 미리 투입된 은퇴준비 시간은 에너지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산업사회, 초경쟁사회에서 맞닥뜨린 노년기의 취직은 마음 먹은대로 어느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이 선호하는 일은 장기적 준비와 숙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허균석·황덕순, 2012).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인적 네트워크는 돈이나 물건만큼 중요한 부의 형태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생활 경쟁이 치열한 사회 일수록 서로 도울 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결국 사람사이에 오고가는 돈, 상품, 노동력의 흐름은 일종의 물물교환과 저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교류에 투자하는 시간은 미래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경제적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 사회적 인적자본 형성은 '적게 관계하고, 더 많은 풍성한 교류'를 허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시간투자에 근거한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관계는 로버트 링거(Robert Ringer)가 말한 '가치의 상호교류'이다. 생생한 정보를 주거나, 서로 존중해 주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연속적이고 매력적인 관계는 신뢰와 상보성, 상호간에 만족을 얻는 관계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지름길은 어렵다(러닝솔루션, 2004). 시간자본 효과는 사회적자본 형성에 있어서 사용자의 중단 없는 시간투자로 온전히 발현 되므로써 삶의 풍성함의 기초로 작용 할 수 있다. 시간은 재무적 비재무적 경제효과 창출에 있어서 일정한 연결효과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자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

5)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라는 개념은 케인즈가 언급한 것으로 인간의 심리,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적인 의사가 결정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에 대한 장기적 인내를 요구하기도 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시간이 어떻게 자본으로 기능하는지와 시간자본이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으로 기여 하는 내용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시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면서도 사용자에게는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시간은 처음부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가 핵심이다. 시간은 관리될 수 없고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간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시간관리 계획의 관점이 아닌 시간 사용의 경제적 효과로서 '시간자본'의 기능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기업의 이윤과 개인의 이윤이 분리되어 분배되는 시장질서에서는 개인의 재무목표달성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재무중심의 풍요의 개념은 경제적 자본 결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했던 측면도 있었다. 또한 '덜 입고 덜 쓰기를 넘어서 '안 입고 안 쓰기'를 통해 지나친 부의 축적에 대한 집중은 삶의 질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간 사용의 효과가 이론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고 제도, 경제적자본,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경제적 자본효과 증대 전략요소로 가계에 교육 및 기능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간은 경제적 자산형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 오늘날 시간은 자기개발, 자산증식, 개인목표, 생산성 증대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다. 시간은 결합자원,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원, 문화성 보유자원, 합목적적 효용성, 무정형성, 거래불가능성(본원적 비시장성), 비저장성, 대차불가능성, 복원불가능성, 절대공평성, 창조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양하다. 시간은 토지, 노동, 자본과

다른 자원이다. 시간은 그 자체로는 경제적 효과는 없다. 그런데 시간은 전통적 생산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시간이 사회제도와 결합되어 사용 될 때 일정한 자본과 같은 효과가 발생 한다. 시간은 복리효과, 비과세제도, 직업개발, 취미개발, 사회적 자본형성 등과 함께 작용할 때 사용효과로서 경제적 효과가 발생 한다. 시간은 개인의 재무적 목표와 비재무적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사회제도와 결합되어 자본으로 기능 한다. 시간자본의 활용은 가계경제 운영과 비재무적인 다양한 개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여유를 제공 한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의 추구에 있다. 개인이 어느 정도의 행복에 도달 하는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많은 관련을 가질 것이다. 시간자본의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풍성히 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시간자본을 활용한 자산형성의 방식을 전환하게 되면 생활의 짜임새 변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자본의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자산형성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도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또한 소비, 소득, 교류 방식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장기적 안목을 갖게 해 준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가 가능하다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편협한 과거의 대가론적(Trade-off) 사고방식을 버릴 수 있다(구계원, 2011).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 범주를 벗어나 시간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화하며 지금까지의 사회의 다양한 자산을 더 심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끝으로,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는 정보시대로 효율적 시간사용을 위해 과거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개인의 시간자본 사용의 어떤 특성 차이가 있는지, 시간자본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는 구체적 생활 향상에 적용 가능한 시간 사용의 가치 정보를 제공할 것이므로 향후 주요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계원(2011). 제3의 경제학.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성진(2008). 시간선호이론에 대한 재검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외숙·조희금·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서울: 교문사.
- 김외숙·이기춘(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171-187.
- 김태희(2008). 시간추적자들. 서울: 황소자리.
- 러닝솔루션(2004). 시간관리. 서울: 피어슨에듀케이션.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_id=b13s1548a
- 박기안(1993). 시간관리학. 서울: 미래비즈니스.
- 서태열 외(2010).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지원 강화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17(1), 9-42.
-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계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_____(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대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2), 67-90.
- 이정아(1996). 소비자의 시간지각과 정보탐색행동과의 관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진(2006). 정보기술은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삼성경제연구소*, 17-69.
- 백숙현(2003). 주부들의 시간부족지각이 기능성화장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복(1994). 시간지각이 의복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석춘·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 윤자영(2010). 비시장시간과 자녀의 인적자본형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장시준(2006). 사회자본의 개념과 교육적 시사점.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영아(2008). 소비자의 시간지각과 여가소비행동 관계: 20-40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하태석(2014). 『용인시민신문』. 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3.
- 허균석·황덕순(2012). 은퇴연구의 패러다임의 추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5(4), 23-24.
- 최민식·전은지·정우진(2013). 청소년의 시간선호와 인터넷 중독. *경제교육연구*, 20(1), 109-39.
- Becker, Gary S. 1978.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ersity Press.
- _____(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Cotte, J.(2003). Choosing leisure services: the effects of consumer timestyle. *The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7(6), 558-570.
- Harvey, Andrew S.(1993). Quality of life and the use of time theory and measure. *J. of Occupational science*, 1(2), 27-30.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ckols, S.Y. & Metzen, E.J.(1978).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7(2).
- Thaler, Richard H.(1981). Some Empirica Evidence on Dynamic Inconsistency. *Economic Letters*, 8, 201-207.